

2016 기상직 한국사 9급(4월 9일 시행, A책형)

문 1. 다음 자료에서 추구하는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인의 도는 바로 현실 생활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식 된 자는 효도하고, 신하 된 자는 충성하고, 예의로 집안을 다스리고…. 그런데 불교는 어떠한가.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서서 윤리를 파괴하니 이는 오랑캐 무리이다.

- 회헌실기 -

- ① 윤회전생과 인과응보를 주장하였다.
- ② 고려 초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사상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 ③ 신라 말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민간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불법 행위를 공격하는 배경이 되었다.

1.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회헌실기』는 고려 충렬왕 때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에 대한 사적을 모은 책이다. 안향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초상화, 제기 등을 구하고 악기와 육경 및 제자 사서를 사 오도록 하여 고려에 성리학이 수용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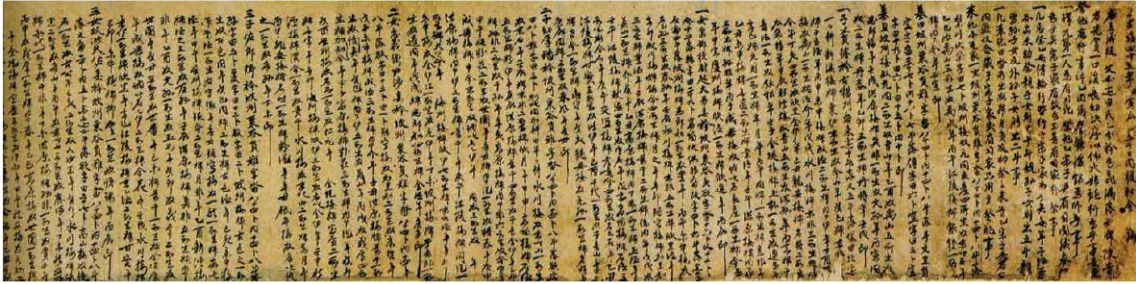
④ 고려 후기 신진 사대부는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당시의 지배층인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 겸병과 폐단을 비판하였다.

①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불교의 교의를 살펴보면 내세는 현세의 삶이 무대를 바꾸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는 현세에서 행한 자신의 업(業)과 공덕에 따라, 즉 인과응보(因果應報)로 내세에서 어떤 형태로 윤회전생하거나 왕생극락한다는 것이다. 즉, 현세와 내세에서의 화복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던 것으로,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불교의 계율에 입각해 성찰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불교적 가치관은 당대인의 생활 속에 실천윤리로서 깊숙이 자리잡았다.

② 성리학은 고려 후기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제시된 선택지는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다.

③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이 더해져 고려 시대에도 크게 유행하였다. 개경·서경 길지설이 널리 유행하였으며,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면서 서경 천도 및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경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문 2.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율곡 이이의 형제자매 분재기>

<보기>

- ㄱ. 남녀 차등 상속이 원칙이었다.
- ㄴ.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확립에 따른 재산 상속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 ㄷ. 제사를 승계하는 자식에게 재산의 5분의 1을 더 배정하고 나머지는 균분했다.
- ㄹ. <경국대전>의 재산 분배 원칙을 따랐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2.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율곡이 41세 되던 해에 작성된 것으로 율곡 이이의 7남매와 서모인 권씨가 가옥·토지·노비 등의 유산을 나누어 상속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 분재기에는 소유 토지의 면적과 가옥의 규모 등 재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 재산 상속을 통한 사회 제도 및 경제 제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ㄷ.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공고해지는 이전, 조선 중기까지의 재산 상속에서는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ㄹ. 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서의 맨 첫째 줄에 ‘가정 45년(1566) 병인 5월 20일 동복하회구의(嘉靖四十五年丙寅(1566)五月二十日同腹和會口議)’라고 써서 동복형제들이 1566년에 모여 합의한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산의 분배 기준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였는데, 시집간 자매에게도 재산을 균등히 분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 사회 체제에서 분배되던 재산 분배 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ㄱ.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에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갔다.

ㄴ. 율곡 이이의 형제 자매 분재기에는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 사회 체제에서 분배되던 재산 상속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 3. 밑줄 친 ‘이것’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것은 마땅히 명망이 우선되어야 하고 탄핵은 뒤에 해야 한다. ... 천하의 득실과 백성을 이해하고 사직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일정한 직책에 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만이 행할 수 있으며 간관만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니, 간관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 삼봉집 -

- ① 왕명을 출납하였다.
- ② 국정 운영을 총괄하였다.
- ③ 관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였다.
- ④ 유학을 가르치고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3.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정도전이 1396년(태조 5년)에 편찬한 『경제문감』 중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에 대해 논한 글이다. 정도전은 언관(言官)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관료 체제의 균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것’은 ‘대간’이며, 대간이란 양사를 일컫는 말로서 사헌부와 사간원을 말한다.

③ 사헌부는 감찰 기관으로서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을 규찰하며, 풍기와 풍속을 교정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주는 등의 일을 맡은 기관이었다.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을 간하고, 관리들의 공정하지 못한 임명을 논박하고 시정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양사의 관원은 임명된 관리의 신분과 경력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可否)를 승인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원을 언관(言官)이라고도 하였다.

- ① 왕명 출납의 기관인 승정원에 대한 내용이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후원(喉院)’, ‘은대(銀臺)’라고도 불렸으며, 정3품 도승지 이하 6명의 각부 승지(도·좌·우·좌부·우부·동부승지)가 6조를 분담하였다.
- ② 의정부에 대한 내용으로 최고 관부로서 재상들의 합의를 통하여 국정을 총괄하였으며, 중국에는 없었던 조선의 독자적 관청이었다.
- ④ 조선 시대 역사서를 편찬한 기구는 춘추관이었다.

문 4. 다음 문헌들과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 동문휘고 ☐ 추관지 ☐ 홍재전서

- ① <고금도서집성>을 저술하였다.
- ② 청계천 준설을 시작하였다.
- ③ 수원 화성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 ④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였다.

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문헌들과 관련된 국왕은 조선시대 ‘정조’이다. 『동문휘고』는 조선의 오교문서를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며, 『추관지』는 형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리한 것, 『홍재

전서』는 정조의 시문, 교지, 편지 등을 정리한 문헌이다.

③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서 수도를 수원으로 옮길 목적을 갖고 세운 성이다. 정조는 불운하게 숨진 아버지의 능을 풍수지리학에 따라 양주에서 길지(吉地)인 수원의 화산(花山)으로 이장하면서, 그 부근 주민들을 팔달산 아래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이에 주민들을 위한 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조 또한 자신의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정약용으로 하여금 화성을 세우도록 하여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 행차 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였다.

① 『고금도서집성』은 정조가 저술한 서적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 최대 규모의 백과사전을 말한다. 정조는 『고금도서집성』을 규장각의 주합루(2층 열람실)에 비치하였다.

② 영조 대의 사실로서 조선 건국 초기부터 수해(水害)가 극심했던 청계천의 준설 작업과 유로 변경 사업을 통해 치수(治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영조 36, 1760).

④ 이인좌의 난(1728)은 남인과 소론의 강경파가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켰던 사건이다.

문 5.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가 집권한 후 어느 회의 석상에서 음성 높여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千里)를 끌어다 지척(咫尺)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하였다.

- 매천야록 -

- ①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 ②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을 축소하였다.
- ③ <대전회통>, <육전조례>를 편찬하였다.
- ④ 신미양요 이후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5.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홍선대원군이 노론을 누르고 남인을 기용하여 정치를 안정시키려 했음을 보여 주는 『매천야록(梅泉野錄)』의 일부 내용으로, 밑줄 친 ‘그’는 홍선대원군이다.

②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자대권, 자천권)의 축소 등 이조 전랑의 권한 약화는 영조 대의 사실이다. 영조 대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던 이조 전랑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자대권(自代權) 또는 자천권(自薦權)]하고, 3사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해주었던 권한[통청권(通淸權)]을 폐지하였다(영조 17, 1741). 그러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다시 부활되었다가 이후 정조 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① 홍선대원군은 만동묘를 비롯하여 붕당 근거지로서 백성을 수탈해 온 서원을 47개소만 남긴 채 대폭 정리하였다.

③ 홍선 대원군은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 조례 등의 증감된 것을 모아 『철종실록』 편찬 이후 새로이 『대전회통(1865)』과 『육전조례(1867)』 등의

법전을 정비하였다.

④ 척화비는 비문 내용이 병인양요 때 제작되어 신미양요(1871) 이후 전국에 세워졌다.

문 6. 다음 시의 밑줄 친 ‘그 날’의 발단이 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뗏등마다
그 날 쓰러져 간 젊음 같은 꽃 사태가
뗏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불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련히 꿈도 설위라 물이 드는 이 산하.

- 이영도, ‘진달래’ -

- ①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 ② 자유당 정권은 대대적으로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 ③ 12·12 사태 이후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였다.
- ④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6.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희생된 꽃다운 젊음’을 ‘진달래의 꽃사태’로 비유했다. 이 시는 후에 노래로 작곡되어 대학생들의 애창곡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4·19 혁명의 발단이 된 역사적 사실을 찾는 문제이다.

②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독재 정치 강화와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면서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개되면서 정권 타도 투쟁으로 변화하였고,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간선제를 고수하려는 4·13 호헌을 발표하면서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억제하였다. 직선제로의 개헌을 골자로 한 민주 헌법 쟁취를 구호로 내건 6·10 민주 항쟁이 발발하였고 이는 6·29 민주화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③ 10·26 사태 이후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축이 된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사령관 정승화 등의 군 부 온건파를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하였다. 이후 전두환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1979년 12·12 사태). 이후 신군부는 민간 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였다. 계엄령이 확대 실시되면서 국회의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의 휴교, 파업 금지, 언론 검열 강화 등이 포고되었다. 또한, 학생 운동의 지도부, 김대중 등의 정치 인사들을 체포·구속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④ 한·일 국교 정상화(1965. 6. 22)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정부는 미국의 수교 요구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시민과 대학생들의 굴욕 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6·3 사태, 1964. 6. 3)하면서 시위를 진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시민과 학생들의 저항 속에서 1965년 6월 22일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문 7. 화폐의 발행된 시기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① 팔방통보 - 해동통보 - 당백전 - 대동폐
- ② 해동통보 - 팔방통보 - 당백전 - 대동폐
- ③ 팔방통보 - 해동통보 - 대동폐 - 당백전
- ④ 해동통보 - 팔방통보 - 대동폐 - 당백전

7. 정답 : ②

•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 대 제조된 화폐이다. 1097년(숙종 2년) 주전관(鑄錢官)을 두고 4년 후인 1101년(숙종 6년) 주전도감(鑄錢都監)을 설치하였고, 이듬해 12월 주전법을 제정하여 해동통보를 제작하였다.

• 팔방통보는 조선 세조 때 주조(세조 10년, 1464)된 화폐로서 이는 화폐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당시 여진족이 자주 침입하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전폐(箭幣)를 화살촉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실용적 측면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당백전은 1866년(고종 3년)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동전으로 당백전 한 개가 상평통보 100개에 해당하였다. 당시에는 화폐의 가치가 주조할 때 들어간 금속의 양에 비례하였는데, 당백전은 무게가 상평통보의 6배 정도 밖에 안되면서 가치는 100배였으므로, 이로 인해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이라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

• 대동폐는 1882년 은으로 만든 최초의 근대적 화폐이다. 이 은전은 청(淸)나라에서 구입한 마제은(馬蹄銀: 중국에서 거액의 거래를 할 때 화폐처럼 사용하던 말굽모양의 은괴) 3만 냥을 원료로 하여 호조에서 만들어 1882년에 유통되었다. 하지만 원료인 마제은의 가격 급등으로 대동은전의 제조 원가가 높아져 적은 양만 주조되는 데 그쳤으며, 발행한 지 9개월이 지난 1883년(고종 20) 6월에는 주조가 중단되었다.

문 8. 다음 격문이 발표된 시기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 수령과 방백 밑에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 동학 농민군 백산 격문 -

	(가)	(나)	(다)	(라)	
보은집회	고부 농민 봉기	전주화약	일본 경복궁 점령	우금치 전투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8. 정답 : ②

제시된 연표의 보은 집회는 1893년 3월, 고부 농민 봉기는 1984년 1월 10일, 전주화약은 1894년 5월 8일, 일본의 경복궁 점령은 1894년 6월 21일, 우금치 전투는 1894년 11월 11일의 사실이다.

② 제시된 사료는 고부 봉기 이후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의 횡토를 계기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동학 농민군이 무장에서 봉기하면서 발표한 격문(檄文)이다(3. 20). 따라서 제시된 연표의 (나)에 해당한다.

문 9. 다음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시행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서당 규칙을 발표하여 개량 서당을 탄압하였다.
 ㉡ 회사령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었다.
 ㉢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항일 민족 운동을 탄압하였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9. 정답 : ②

㉠ 서당 규칙의 제정은 1918년의 사실이다. 일제는 반일적인 서당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서당 설립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규칙을 위반하여 식민지 통치 질서를 해치거나 교육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도장관이 그에 대한 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사상과 행동이 불온한 사람은 서당을 개설하거나 그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서당이 애국적 지식인들에 의하여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일제는 1920년대에 한반도를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투자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회사령을 철폐하였다(1920). 이에 따라 회사 설립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 1925년 공산주의자 등 일제의 체제를 부정하는 단체 및 개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억압하려는 수단에서 시행되었다.

㉢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 이후부터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국가 총동원법(1938)을 제정하여 한국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문 10. 다음 자료에 나타난 근대 시설을 볼 수 있는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륜차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라. 차창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 ① 노량진에서 제물포행 전차를 타는 상인
- ② 황성신문을 읽고 있는 양반
- ③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 ④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의병에 가담한 농민

10.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899년 경인선 철도 개통과 관련된 신문 기사의 내용 중 일부이다.

- ①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전차가 아니라 철도(열차)였다. 따라서 이 시기 사회 모습으로 볼 수가 없다.
- ② 황성신문은 1898년 창간되어 1910년까지 발간되었기 때문에 경인선 개통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옳은 내용이다.
- ③ 세브란스 병원은 1904년 에비슨이 설립한 것으로 경인선 철도 운영과 관련하여 옳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④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 11. (가)~(라)의 통일 정책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나)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라) 1.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4.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가) -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 ② (나) - 3저 호황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 ③ (다) -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 ④ (라) -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금을 앞당겨 상환 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11. 정답 : ③

제시된 사료 (가)는 2000년 6월 15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 선언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를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 한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은 6월 14일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통일 방안을 논의한 뒤 5개 항에 합의하였다

(나)는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2년 7월 4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최초의 합의 문건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이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다)는 노태우 정권 때인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 부문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이다. 이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한다.

(라)는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표하는 선언문이다. 당시 남북 정상,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두 차례의 단독 회담을 갖고 평화 정착, 공동 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협의하였다. 그 결과 총 8개항의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이 발표되었다.

①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김영삼 정부 때의 사실이다. ② 3저 호황을 통해 무역수지를 달성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 때의 사실이다. ④ 외환위기 극복에 대한 내용으로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문 12. 다음 원시 신앙이 출현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 물 등의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 특정 동식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겼으며, 무당과 그 주술을 믿었다. ○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혼과 조상을 숭배하였다. |
|---|

- ①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하였다.
- ② 명도전, 왕망전 등을 사용하였다.
- ③ 주로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 살았다.
- ④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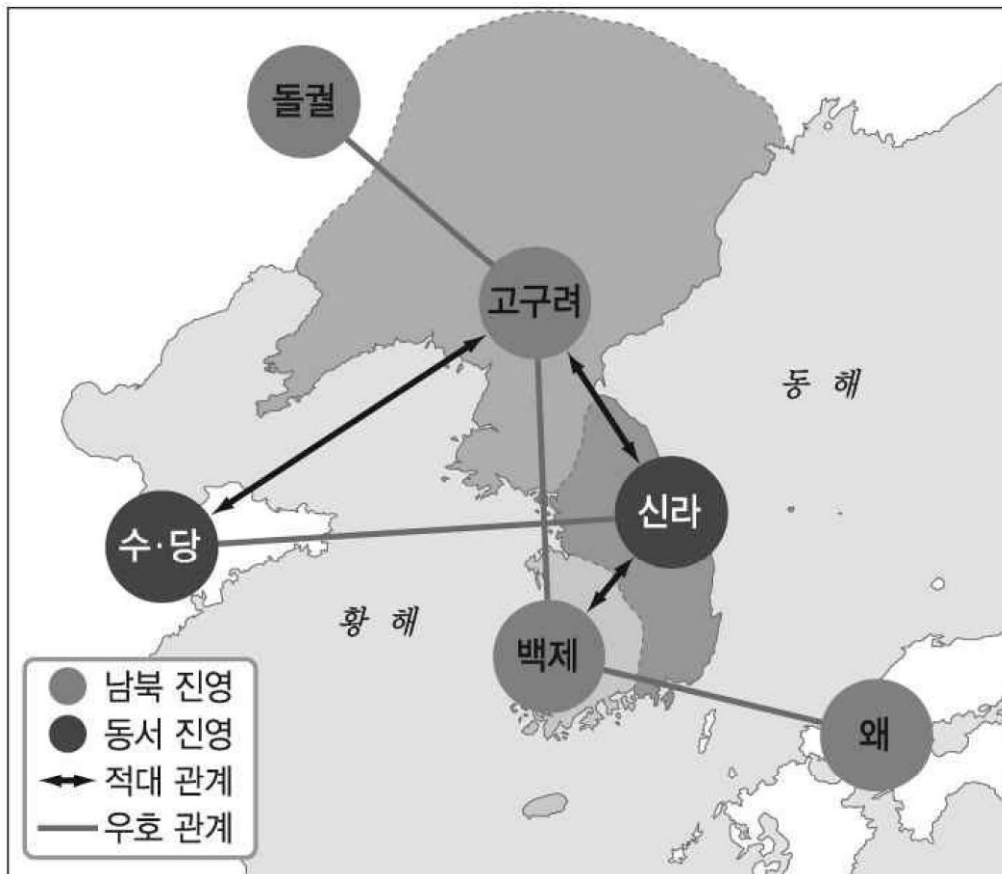
12.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원시 신앙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신석기 시대에 발생하였다.

④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등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①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다. ② 명도전, 왕망전 등의 중국 화폐의 흔적은 철기 시대의 사실이다. ③ 구석기 시대의 주거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문 13. 다음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았다.
- ② 왜와 백제가 고구려를 구원하기 위해 백강 전투에 참전하였다.
- ③ 신라는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다.
- ④ 5세기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여 강성해지자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였다.

13. 정답 : ③

제시된 지도에서는 7세기 십자 외교와 관련된 국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③ 7세기 선덕여왕 대 외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승려 자장(慈藏)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① 천리장성의 축조는 7세기의 사실이지만, 이는 수나라의 공격이 아니라 당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② 백강 전투는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에 진입하였으나, 백강 입구 전투에서 패배하였다(663).

④ 5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는 백제, 그리고 고구려이다.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이후 당항성을 쌓고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에 대항하여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수시로 신라를 공격하였다.

문 1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릇 오래 전에 읽었던 <상서>를 돌이켜보건대, 요 임금은 ... <좌전>을 널리 상세히 보건대, 주나라 천자가 딸을 제나라에 시집보낼 때 ... 어머니로서 갖춘 규범이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선인들이 쌓은 은혜가 어찌 무궁하게 전해지지 않으리오.

- 정효공주 묘지(墓誌) -

- ① 당시 유학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묘지가 발견된 무덤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 ③ 변려체로 작성되어 한문 사용이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고구려의 전형적인 고분 양식을 계승한 굴식 돌방무덤에서 출토되었다.

14.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중국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발해 정효공주의 묘지(墓誌)이다.

④ 고구려의 전형적인 고분 양식을 계승한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를 지닌 것은 발해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 묘로서 천장 구조는 고구려식의 모죽임으로 되어 있다.

①, ③ 정효공주 묘지 비문에서 보이는 <상서>, <좌전>은 모두 중국 유학 경전으로서, 이를 통해 발해 사회에도 유학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4·6 변려체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한문학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정효공주 묘에서는 묘지와 함께 무사, 시위, 내시, 악사 등 공주를 모시는 12명의 인물을 그린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고분의 봉토 위에는 탑을 조성하였다.

문 15.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차돈은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심정을 눈치채어 왕에게 아뢰었다. ... “일체를 버리기 어려운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 옥리(獄吏)가 목을 베니 허연 것이 한 길이나 솟았다.

- 삼국유사 권3 -

- 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즉위하였다.
- ②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 ③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④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다.

15.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와 관련된 ‘왕’은 법흥왕(514~540)이다.

④ 고구려 장수왕 대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백제와 신라는 이에 대항하여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433). 이 나·제동맹은 553년 신라 진흥왕이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결렬되었다. 따라서 법흥왕 시기까지는 나제동맹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① 최초의 진골 출신 국왕은 태종 무열왕이다.
- ② 고구려의 평양성 천도는 장수왕 대인 427년의 사실이다.
- ③ 지증왕에 대한 내용으로 이 때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고쳤다.

문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원정(청주) 부근 사해점촌 및 4개 촌락에 대한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조세 제도 운영을 잘 보여 주는 자료이다. 1933년 일본 도다이사(동대사) 쇼소인(정창원)에서 발견되었으며, ‘신라 장적’이라고도 한다.

- ① 남녀를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② 재산 상속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③ 각 촌락의 인구와 토지의 종류, 면적만 조사했다.
- ④ 조세, 역, 공물 수취를 위해 촌주가 매년 작성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6.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신라 민정 문서이다.

- ① 신라 민정문서에서는 해당 촌락의 전체 주민 수를 성별과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하고 노비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 ② 신라 민정문서에는 토지의 종류와 면적, 인구수의 변동 등을 기록한 것으로 재산 상속과 분배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 ③ 민정문서에서는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 ④ 민정 문서는 매년 변동 사항을 토착 세력인 촌주가 조사하여 3년마다 촌 단위로 촌주가 다시 작성하였다.

문 17. 밑줄 친 ‘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말 모든 읍(邑)의 토인(土人)으로 그 읍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직호를 내리고 토인에게 해당 지방의 일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를 일러 호장이라 하였다.

- 연조귀감 -

- ① 고려 말 재지사족이 증가하면서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상실해갔다.
- ② 호장의 직역을 세습하였으나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 ③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였으나 제도적으로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④ 호장은 대개 백정(白丁)이라고 불렸으며 잡과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다.

17.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호장’은 고려시대 향리층을 의미한다.

① 호장은 향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층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을 자율적으로 통치하였다. 이들은 과거 등을 통해 관료로 진출하여 지배 신분층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향리의 상층부는 지위를 높여갔지만, 향촌에 토착한 향리들은 처지가 열악해졌다. 또한 고려 말에는 향촌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에 전함품관, 한량품관, 유향품관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신분층이 품관이 등장하면서 향리보다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향리가 가진 향촌 사회의 주도권도 약해지게 되었다.

② 향리는 향적을 세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분급받았다.

③ 호장·부호장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 문벌 귀족에 비해 차등이 없었다.

④ 백정(白丁)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양인을 의미하는데, 이들에게는 법제적으로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문 18. 밑줄 친 ‘역법서’가 간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역법은 고려 시대에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다가 충선왕 때 원의 수시력을 채용하였고, 공민왕 때 명의 대통력을 들여온 이후 조선도 이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법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새로운 역법서를 편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력이었던 것이다.

① 한양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

② <향약집성방>, <이륜행실도>가 간행되었다.

③ 혜정교와 종묘 앞에 양부일구를 처음 설치하였다.

④ 현주일구, 천평일구가 만들어졌다.

18.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역법서’는 세종 때 간행된 『칠정산 내외편』을 의미한다. 세종은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궤』와 『태양통궤』 등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칠정산』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칠정산 내편은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율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또한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이해하기 위해 칠정산 외편을 개정·증보하였다.

② 『향약집성방』은 세종 대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한 의학 서적이다. 연소자와 연장자, 친구 간의 의리를 밝힌 『이륜행실도』는 중종 때인 1518년에 간행되었다.

- ① 금화도감은 도성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하고 화재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세종 때 설치되었다. 이후 금화도감은 『성종실록』을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 역할은 1481년(성종 12) 3월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설치로 이어졌다.
- ③ 양부일구(1434)는 세종 대 만들어진 해시계를 말하는데 대궐뿐만 아니라 종로 혜정교와 종묘 앞에도 설치하여 백성들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④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는 세종 대 만들어진 휴대용 해시계를 말한다.

문 19. (가)~(라) 불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고구려에서 제작된 불상이다.
- ② (나) - 백제 불상 양식을 계승한 철불이다.
- ③ (다) - 고려시대의 석불로 은진미륵이라 불린다.
- ④ (라) - 석굴암 본존불상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19. 정답 : ③

제시된 (가) 불상은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광주 춘궁리 철불), (나)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다)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라)는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이다.

③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충남 논산시 은진면 관촉리에 위치한 관촉사에 자리한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으로 석불의 높이는 18m에 달하며,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린다. 석불의 이마에 있는 백호(白毫)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덕 16년 신사 4월 15일(正德十六年 辛巳四月十五日)……”이라고 기록된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어 968년(고려 광종 19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은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춘궁리의 사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불상이다. 현재 발견된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이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으로 변경되어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광주 춘궁리 철불이라고도 한다. 이 불상은 몸의 균형미로 볼 때, 경주 불국사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8세기 통일신라의 불상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목의 삼도가 가슴까지 내려오게 표현되어 정확한 목의 구분이 없는 점

등은 고려 초기 불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②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은 재료가 흙으로 만든 토재(土材) 형식의 소조불로서 신라 시대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④ 석굴암 본존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것은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에 해당한다.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과 같이 자연 암벽을 이용하여 불상의 몸체를 만든 수법으로 제작된 예로,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문 20. 다음 자료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당시 경제적 상황은?

근래 흉년이 해마다 더욱 심해진데다가 변경의 일까지 생겨 마구 쓰는 것이 수백가지여서 국고가 고갈되었습니다. 관원을 줄이고 녹봉을 감하여 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들의 직전까지도 부득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①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고 농장이 확대되었다.

② 수신전과 홀양전을 지급하게 되었다.

③ 경기 8현의 토지를 녹봉 대신 나누어 주었다.

④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분급하였다.

20.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조선 중기 명종 대인 직전법 폐지 이후 상황에 대한 상소문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① 직전법 폐지로 인해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관계(전주전객제)는 영원히 사라지고,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 지배 관계(지주전호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양반들의 토지 소유 욕구가 더욱 심화되면서 대농장이 확산되었고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② 수신전과 홀양전의 지급은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다.

③ 경기 8현의 토지를 녹봉 대신 분급한 것은 고려 시대 녹과전에 대한 내용이다.

④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분급하는 것은 고려 시대 경정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다.